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

A Study on Perception of Historical Geography of Iljeon(一然)

저자
(Authors) 정천구
Jung, Chunkoo

출처
(Source)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3\(3\)](#), 2020.9, 303-333 (31 pages)
[Korean Studies Quarterly 43\(3\)](#), 2020.9, 303-333 (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73812>

APA Style 정천구 (2020).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3(3), 303-33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3 13: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

정천구

바카데미아 연구원, 한국문학 전공

appulssa21@hanmail.net

- I. 머리말
 - II. 「기이(紀異)」편 글쓰기의 한 특성
 - III. 「기이」편의 두 가지 지리적 흐름
 - IV.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그 제목에서부터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유사임이 드러나 있다. 물론 ‘신라’의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삼국의 유사다. 「기이(紀異)」편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서(敍)’에서도 중국에서 제왕이 일어날 때의 갖가지 조짐들을 서술한 뒤에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한들 무엇이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기이」가 여러 편들의 처음이 된 까닭이니, 그 뜻이 여기에 있다”¹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기이」편의 앞부분, 정확하게는 <신라시조 혁거세왕(新羅始祖赫居世王)> 앞까지는 삼국 이전의 고대사에 해당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부(二府)>나 <북대방(北帶方)> 등 꽤 이질적으로 보이는 조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앞부분의 조목들을 모두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고조선(古朝鮮)>, <위만조선(魏滿朝鮮)>, <마한(馬韓)>, <이부>, <칠십팔국(七十八國)>, <낙랑국(樂浪國)>, <북대방>, <남대방(南帶方)>, <말갈 발해(靺鞨渤海)>, <이서국(伊西國)>, <오가야(五伽耶)>, <북부여(北扶餘)>, <남부여(南扶餘)>, <고구려(高句麗)>, <변한 백제(卞韓百濟)>, <진한(辰韓)>, <우사절유택(又四節遊宅)>,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기백은 「기이」편을 두고 “국가사를 엮는 것”²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는 국가사에서 벗어난

1 『三國遺事』 권1, <敍>.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神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2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신라문화』 1집(1984), 18쪽.

조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순서도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이」편에 ‘서’가 있다는 사실은 「기이」편이 어떤 의도에서 구성되었을 것임을 의미하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이 일연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는 지표로 눈에 띄는 것이 글쓰기다.³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와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하는 글쓰기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는 주제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인 설명과 논증이 주로 쓰였고,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하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서사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⁴ 이렇게 서사보다 설명과 논증을 선택한 이유 또는 의도는 무엇일까?

「기이」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 편 of 전체적인 성격⁵, 일연의 인식⁶,

- 3 『삼국유사』처럼 특이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는 창작이나 편찬, 편집 따위를 포함하면서 특정한 형식의 글만을 가리키지 않는, 즉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글쓰기’라는 용어가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글쓰기’로써 『삼국유사』를 고찰한 연구로는 정천구, 「三國遺事 글쓰기 방식의 특성 연구: 殊異傳·三國史記·海東高僧傳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이 있다.
- 4 정천구(1996). 위의 논문에서 설명과 논증, 서사와 묘사의 개념을 활용하여 『삼국유사』의 글쓰기 방식을 비교 연구한 바 있는데, 전체적인 글쓰기 특징을 논의했을 뿐 「기이」편만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 5 이기백(1984), 앞의 논문, 13-25쪽; 정구복, 「『삼국유사』에 반영된 역사관과 기이편의 성격」,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2005), 1-14쪽; 김주성,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 34집(2010), 503-527쪽; 김수태,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41호(2017), 181-222쪽; 남동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집(2019), 199-240쪽.
- 6 최상천, 「三國遺事に 나타난 國家繼承意識의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1집(1985), 241-258쪽; 하정현, 「一然의 神話認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김병곤, 「『삼국유사』 찬자의 상고기 정치체에 대한 계승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10호(2004), 5-38쪽; 박미선, 「일연(一然)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삼국유

서지 사항 또는 인용 문헌⁷, 서술방식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기이」편 앞부분의 특이한 구성에 대해 적절하게 또 일관되게 해명한 연구는 없었다.⁹ 겨우 몇 조목만을 다루는 데서 그친 연구도 있다.¹⁰ 이는 결국 특이한 구성과 글쓰기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지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했으므로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 곧 역사적 흐름을 지리적 측면과 결합해서 이해한 인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¹¹

일연의 지리 인식에 대해서는 최상천과 김병곤의 연구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¹² 두 연구 모두 본고에서 다룰 조목들을 분석했는데, 최상천은 고조선의 역사 계승에는 지역성과 혈연성이 뒤섞여 있다면서 지역성을 언급했고,

사 기이(紀異)편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0호(2008), 143-170쪽; 차광호,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인식”, 『사학지』 55집(2009), 70-89쪽.

- 7 김두진, 『삼국유사』의 인용문과 그 성격, 『사학연구』 76호(2004), 85-122쪽; 김성수,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서지학연구』 29집(2004), 207-240쪽.
- 8 이대형, 「삼국유사 소재 ‘기이’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1집(1998), 151-179쪽; 이강엽, 『三國遺事』 「紀異」篇의 敘述原理, 『열상고전연구』 26집(2007), 481-519쪽; 엄태웅, 『삼국유사』 「기이」 부여·고구려 관련 기사의 서술 의도: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서사적 접근, 『열상고전연구』 47집(2015), 623-666쪽.
- 9 최상천(1985), 앞의 논문과 김병곤(2004), 앞의 논문에서 ‘계승’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나, 일관성보다는 복잡성과 해명의 어려움만 더 부각되었을 뿐이다.
- 10 차광호(2009), 앞의 논문과 엄태웅(2015), 앞의 논문에서 한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 11 본고에서 말하는 ‘역사지리’는 영어로 ‘historical geography’가 된다. 이 용어에 대해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는 “특정한 시기 또는 과거의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지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참조해서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역사지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지리적 이동 또는 지리적 변화”라는 의미로 쓴다는 점을 밝혀둔다.
- 12 최상천(1985), 앞의 논문; 김병곤(2004), 앞의 논문.

김병곤은 상고 시대의 정치체에 주목하여 정치적 계승, 동일 왕계 계승, 지리적 계승, 인적 계승 등을 거론하면서 일연의 지리적 인식에 대해 언급했다. 비록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한다.

본고는 「기이」편의 각 조목들이 일연의 의도에 따라 배치된 것이며, 서술되어 있는 지리적 정보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먼저 「기이」편에 왜 '삼국 이전' 시대와 관련된 조목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조목들의 글쓰기는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논의의 대상은 <신라시조 혁거세왕> 앞에 배치된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 17조목이다. 독특한 구성과 글쓰기 방식은 지리적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일정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한 분석하여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에 대해서 논의한다.

Ⅱ. 「기이(紀異)」편 글쓰기의 한 특성

『삼국유사』 「기이」편은 모두 59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을 보면, <신라시조 혁거세왕>부터 <김부대왕(金傅大王)>까지 '신라사'라 할 38개의 조목들이 분량에서나 위치에서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부분에 <고조선>부터 <우사절유택>까지 17개 조목들이 배치되고 <김부대왕> 뒤에는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南扶餘 前百濟 北扶餘)>부터 <가락국기(駕洛國記)>까지 4개 조목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부분의 17개 조목들을 중심으로 그 글쓰기 방식과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서사적 성격이 짙은 <고조선>의 글쓰기 방식을 보자.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분은 주석이다. 이하 동일).

- ① 『위서』에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아사달【경전에 서는 무엽산이라 하였고, 또 백악이라고도 하였는데, 백주 땅에 있다. 혹은 개성의 동쪽에 있으며 지금의 백악궁이 이것이라고도 한다.】에 도읍을 세워서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다는데, 요 임금과 같은 때였다.”
- ② 『고기』에 나온다. “옛날에 환인【제석을 이른다.】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더니 인간세상을 탐내었다. [...] 나중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며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고 한다.”
- ③ 당나라 배구의 전기에 나온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지금의 해주다.】이다.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 때 이를 나누어 3군을 두었으니, 현도·낙랑·대방【북대방이다.】이라 하였다.” 『통전』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한서』에서는 진번·임둔·낙랑·현도 4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3군이라 하고 명칭 또한 같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¹³

위에서 ①과 ③은 중국의 문헌을 인용한 것이고, 가운데 ②는 국내 자료에서 끌어온 것이다. ②는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난 단군이 조선을 세운 이야기로, 서사에 해당하는 글쓰기다. 반면에 ①과 ③은 설명으

13 『三國遺事』 권1, <古朝鮮>. “①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開國號朝鮮, 與高同時. ②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③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今海州】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 【北帶方】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

로 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위서』에는 ①의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이 인용을 통해 일연이 무얼 말하려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의 내용은 위낙 신이(神異)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¹⁴ 문제는 역사적 사실일 수 있는 단군의 조선 건국조차 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일연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중국 측 자료를 먼저 제시했던 듯하다. 그런데 단군왕검이 조선을 세운 때가 요 임금 때였다는 시기의 문제는 쉽사리 반론에 부딪칠 수 있다. 요 임금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 간주하더라도 그의 활동 시기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비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리적 정보다.

일연이 『위서』의 인용문에서 방점을 찍은 것은 ‘아사달에 도읍을 세웠다’는 부분이다. ‘아사달’에 대해 주석을 달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주석의 내용은 꽤 자세하다. 이로써 보면, ①은 본문과 주문(註文) 모두 지리적 정보를 제시하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①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만 ③에서 느닷없이 ‘고구려’를 언급하고 있어 다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본래 고죽국이며 그 땅에 기자를 봉해 ‘조선’이라

14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세상에서는 동명왕에 대한 신이한 일을 많이 이야기한다. 비록 어리석은 사내나 몽매한 아녀자라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제법 이야기할 줄 안다. 나는 일찍이 그것을 듣고는 웃으면서 ‘선사이신 공자께서 괴이함과 힘, 어지러움과 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셨다는데, 이야말로 참으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못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東國李相國集』 권3, 「東明王篇」,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雖愚夫駢婦，亦頗能說其事。僕嘗聞之，笑曰：‘先師仲尼，不語怪力亂神，此實荒唐奇詭之事。非吾曹所說。’)” 이를 통해 당시 고려의 지식인들은 신이한 일은 이야기할 거리가 못 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했다는 점을 거론하기 위해서다. 일연이 ‘기자조선’을 조목으로 두지 않고 여기서 간단히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연 스스로 ‘기자조선’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③에서 기자를 언급한 것은 단군왕검의 ‘조선’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다는 사실을 지리적 정보로써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¹⁵

경험적 사실을 넘어서는 황당한 내용이 많은 『고기』의 앞과 뒤에 ①과 ③을 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의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여겨진다. 그런 의도는 허구적 성격이 강한 『고기』의 내용에도 작용했다. 위의 ②에서 볼 수 있듯이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왕검은 요 임금의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庚寅年)【요 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50년이면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듯하다.】에 평양성(平壤城)【지금의 서경이다.】에 도읍을 정하고 처음으로 조선(朝鮮)이라 일컬었다. 다시 백악산(白岳山)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는데, 그곳을 궁【방으로도 쓴다.】홀산(弓忽山)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하였다.¹⁶

신기한 내용이 다분한 ②에 연대와 지명에 대한 주석을 자세하게 덧붙인 점은 분명 특이하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①의 『위서』와는 다른 지리적 정보다. 『위서』에서는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했다고만 나오는데, 『고기』에서는 평양성에 도읍을 정했고 나중에 다시

15 ‘기자’라는 인물 자체가 중국의 역사에서 실존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에 버금가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 게다가 그의 활동 시기가 대략 요 임금과 위만조선의 중간쯤에 해당한다는 점 등도 ‘고조선’의 역사적 실재와 관련해서 유용하다고 일연이 판단했을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16 『三國遺事』 권1, 〈古朝鮮〉.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堯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都平壤城,【今西京.】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아사달로 옮겼다고 했다. 아사달에 도읍했다는 정보는 두 문헌에서 공통되지만, 아사달이 있었던 산과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고기』가 훨씬 자세하다. 또 『위서』의 주문에서 언급된 ‘백악’과 ‘백악궁’이 위 『고기』에서는 본문에 나온다. 『위서』의 주문과 『고기』의 본문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지리적 정보가 상호보완하면서 역사적 사실성을 강화해주는 구실을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고조선〉은 서두와 말미가 지리적 정보를 담은 설명으로 되어 있고, 중간 서사 부분에서도 설명이나 논증에 해당하는 주문이 더해져 있다. 서사의 성격이 신이(神異)하든 사실적이든 간에 경험을 통해 입증 가능한 지리적 정보를 설명과 논증으로 보완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허구적 성격이 약화된다. 이런 글쓰기는 『사기』의 〈오제본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인데¹⁷, 일연이 그것을 참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실성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고조선〉의 글쓰기는 〈위만조선〉, 〈동부여〉, 〈고구려〉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나머지 조목들은 설명과 논증의 비중이 서사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설명과 논증으로만 된 것들이다. 그 가운데서 〈낙랑국〉을 보자. 이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전한 때 처음으로 낙랑군을 두었다. 응소는 이를 “옛 조선국이다”라고 하였다. 『구당서』의 주석에서는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라고 하였다.
- ② 『국사』에서는 “혁거세 30년(기원전 28)에 낙랑 사람들이 와서 몸을 맡겼다”고 하였고, 또 “제3대 노례왕 4년(27)에 고구려의 제3대 무휼왕이

17 『사기』 〈오제본기〉에서도 지리적 정보가 적지 않게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없으나, 그 의도에서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낙랑을 쳐서 멸망시키니, 그 나라 사람들이 대방 사람들과 함께 신라에 몸을 맡겼다”고 하였다. 또 “무휼왕 27년(44)에 광무제가 사람들을 보내어 낙랑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살수 이남 지역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여러 글들에 따르면, 낙랑이 곧 평양성이라는 것은 옳다. 혹은 낙랑은 중두산 아래 말갈의 경계이며 살수는 지금의 대동강이라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③ 또 백제의 온조가 한 말에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옛날 한나라 때 낙랑군에 속했던 현의 땅일 것이다. 신라 사람들도 낙랑이라 불렀다. 그래서 지금 본조(고려)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랑군 부인이라 부르고, 또 태조가 김부에게 딸을 내리고는 역시 낙랑공주라 하였다.¹⁸

①은 중국 쪽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전달로, 설명이다. ②는 국내 문헌을 참조하여 서술한 것인데, 마치 사서의 본기(本紀)에서 서술한 듯하다. 여기서 인용문은 모두 지리적 정보와 관련이 있어 서사인 듯 아닌 듯하다. ③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내용이어서 설명보다 논증에 해당한다. 이처럼 주문이 아닌 본문에서 논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②의 본문 뒤에는 주석이 덧붙여 있다. 이 주문의 내용과 서술방식은 ③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낙랑국>은 서사를 가운데 두고 앞과

18 『三國遺事』 권1, <樂浪國>. “① 前漢時, 始置樂浪郡. 應邵(劭)曰: ‘故朝鮮國也.’ 新唐書注云: ‘平壤城, 古漢之樂浪郡也.’ ② 國史云: ‘赫居世三十年, 樂浪人來投.’ 又‘第三弩禮王四年, 高麗第三無恤王伐樂浪滅之, 其國人與帶方【北帶方】投于羅.’ 又‘無恤王二十七年, 光虎帝遣使伐樂浪, 取其地爲郡縣. 薩水已南屬漢.’ 【據上諸文, 樂浪卽平壤城宜矣. 或云: 樂浪中頭山下, 靺鞨之界; 薩水, 今大同江也. 未詳孰是.】 ③ 又百濟溫祚之言曰: ‘東有樂浪, 北有靺鞨.’ 則始古漢時樂浪郡之屬縣之地也. 新羅人亦以稱樂浪. 故今本朝亦因之而稱樂浪郡夫人, 又太祖降女於金傅, 亦曰樂浪公主.”

뒤에 설명과 논증이 있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서사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서사마저 지리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기울어 있다.

본문 전체가 설명으로 서술된 조목들도 있다. <남대방>과 <오가야>가 대표적이다.

조조의 위나라 때 처음으로 남대방군을 두었다. 【지금의 남원부】 그래서 대방의 남쪽으로 바다 천 리를 한해라 하였다. 【후한 건안(196-220) 연간에 마한 남쪽의 황무지에 대방군을 두었는데, 왜와 한이 이윽고 여기에 속했다는 것이 이것이다.】¹⁹

아라 【아로도 쓴다.】 가야 【지금의 함안, 고령가야 【지금의 함녕】, 대가야 【지금의 고령】, 성산가야 【지금의 경산으로,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 【지금의 고성. 또 『본조사략』에서는 “태조 천복 5년 경자년(940)에 다섯 가야의 이름을 고쳤는데, 첫째는 금관 【김해부가 되었다.】이고, 둘째는 고령 【가리현이 되었다.】이며, 셋째는 비화 【지금의 창녕으로, 고령이 그릇된 것인 듯하다.】이고,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 【앞서와 같은데, 성산은 혹 벽진가야라고도 한다.】이다”라고 하였다.²⁰

<남대방>의 본문은 남대방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전부다. 거기에 논증으로 된 주문이 덧붙여 있다. <오가야>는 더욱더 건조한 설명으로 되어 있고, 번거로울 정도로 주문이 많이 붙어

19 『三國遺事』 권1, <南帶方>. “曹魏時, 始置南帶方郡. 【今南原府.】 故云, 帶方之南, 海水千里曰: 瀚海. 【後漢建安中, 以馬韓南荒地爲帶方郡, 倭韓遂屬是也.】”

20 『三國遺事』 권1, <五伽倻>. “阿羅【一作耶.】伽耶, 【今咸安】 古寧伽耶, 【本(今)咸寧】 大伽耶, 【今高靈】 星山伽耶, 【今京山, 云碧珍.】 小伽耶. 【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 【爲金海府.】 二古寧, 【爲加利縣.】 三非大(火), 【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 阿羅·星山. 【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

있다. 설명과 논증 모두 지리적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기이」편 앞부분의 17개 조목들은 대체로 설명과 논증의 비중이 높은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서'에서 신이(神異)의 정당성을 옹호한 점을 생각하면, 다소 생뚱맞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신이를 주요한 표지로 삼아서 「기이」편의 서사방식이나 서술원리를 논한다면,²¹ 위와 같은 글쓰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이」편의 조목들이 서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리라 간주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설명과 논증은 서사와는 아주 다른 글쓰기이므로 설명과 논증에 주목한다면 각 조목들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조목들에 담겨 있는 지리적 정보들이 과연 일정한 맥락을 따라 제시된 것이냐 즉 계통적으로 제시된 것이냐를 분석하는 일이다. 아무런 맥락도 없이 제시된 것이라면 일연의 의도나 인식에 대해 논의할 근거가 없어지지만, 일정한 맥락이나 계통이 있다면 일연의 의도와 인식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그 점을 논의한다.

Ⅲ. 「기이」편의 두 가지 지리적 흐름

「기이」편 앞부분에 배치된 17개 조목들은 얼핏 보면 아무런 계통도

21 이대형(1998), 앞의 논문에서 서사방식을, 이강엽(2007), 앞의 논문에서 서술원리를 검토했다. 이대형은 서사방식에 주목하여 수이전(殊異傳) 일문(逸文)과 비교해서 논의하는 바람에 「기이」편 앞부분의 조목들은 전혀 다루지 못했고, 이강엽은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등을 다루기는 했으나 분석에서 설명과 논증 부분을 간과했다. 따라서 두 연구 모두 「기이」편의 서사나 서술의 원리에 대한 논의로는 불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관대하게 보더라도 고조선에서 신라까지 국가사가 전개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런 맥락이 없이 순서를 정하고 배치했으리라 미리 단정할 수도 없다. 먼저 조목들의 제목부터 따져 보자. 국가사라는 관점에서는 계통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뜻밖의 계통이 드러난다.

- ①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이부>, <칠십팔국>,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말갈 발해>, <이서국>, <오가야>
- ② <북부여>, <남부여>, <고구려>, <변한 백제>, <진한>, <우사절유택>

<고조선>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서지만, <위만조선> 이후를 보면 시대적 순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순서에 따르면 <위만조선> 다음에 <북부여>가 배치되어야 마땅한데, 그 사이에 <마한>과 <이부> 등이 길게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배치가 수긍된다. 즉,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가야>와 <북부여> 사이에서 둘로 나눈 것도 그 때문이다.

요컨대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²², <북부여>에서 <우사절유택>까지를 각각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조목들의 순서에서 대략 드러난 두 갈래가 실제로 각 조목들이 담고 있는 지리적 정보를 통해서도

22 <남대방>에서는 남대방을 지금의 전라도 지역으로 간주하는 듯하므로 <고조선>에서 시작된 이동을 <남대방>에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말갈 발해>에서 <이서국>과 <오가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갈래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대방과 남대방 모두 대방의 갈래이며 낙랑과 더불어 북방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점, <낙랑국>에서 “또 백제 온조왕의 말에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 예전 한나라 때 낙랑군 속현의 땅일 것이다”(又百濟溫祚之言曰: “東有樂浪, 北有靺鞨.” 則殆古漢時樂浪郡之屬縣之地也.)라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대방>과 <말갈 발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봄이 더 적절하다.

입증되는지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1. <고조선(古朝鮮)>에서 <오가야(五伽耶)>까지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웠다는 『위서』를 인용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끝에서는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 때 이를 나누어 3군을 두었으니, 현도·낙랑·대방이라 하였다”²³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위만조선>의 첫머리에 나오는 “처음 연나라 때부터 일찌감치 진번과 조선 [안사고는 “전국시대 때 연나라가 처음으로 이 지역을 침략해서 얻었다”라고 했다.]을 침략해서 얻고는 관리를 두고 보루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의 바깥 변방에 딸리게 하였다”²⁴는 기사로 이어진다.

<위만조선>은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여 진번·임둔·낙랑·현도 등 네 군으로 만들었다”²⁵는 기사로 마무리되는데, 이를 바로 뒤에 나오는 <마한>의 첫 기사가 이어받는다.

『삼국지』 『위지』에 나온다. “위만이 조선을 치자 조선의 왕 준은 궁중 사람들과 측근 신하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고, 남쪽으로 한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고서 마한이라 하였다.”²⁶

23 『三國遺事』 권1, <古朝鮮>.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

24 『三國遺事』 권1, <魏滿朝鮮>. “自始燕時, 常(嘗)略得眞番·朝鮮, 【師古曰: 戰國時, 燕因(國)始略得此地也.】 爲置吏築障. 秦滅燕, 屬遼東·外徼.”

25 『三國遺事』 권1, <魏滿朝鮮>. “遂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

26 『三國遺事』 권1, <馬韓>. “魏志云: 魏滿擊朝鮮, 朝鮮王準率宮人左右越海, 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위만에 의해서 조선이 멸망하고 조선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넜는데, 다다른 곳이 마한이라 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라면 조선왕은 훗날의 백제 땅으로 내려온 셈이다. 그렇다면 <마한>의 뒤에 조선의 옛 땅과 관련된 조목들 곧 <이부>, <낙랑국>, <북대방> 등이 놓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지리적으로는 <마한> 뒤에 바로 <이서국>, <오가야>로 이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리적 접근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음은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올린 글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옛날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혁거세가 우적 일어나자, 이에 백제가 금마산에서 나라를 열었다.”

최치원이 말하였다. “마한은 고구려고, 진한은 신라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신라가 먼저 갑자년(기원전 57년)에 일어나고 고구려는 그 뒤 갑신년(기원전 37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왕 준을 두고 한 말일 뿐이다. 동명왕이 일어난 것은 이미 마한을 아우른 뒤에 그로 말미암았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를 마한이라 일컬은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러 금마산을 가지고 마한이 백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잘못된 것이다. 고구려 땅에는 본디 마음산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마한이라 한 것이다.】²⁷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올린 글과 최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한’이 ‘고구려’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일연은 길게 주석을 달아서 논증을 하며 “고구려 땅에는 본디 마음산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마한이라 한 것이

27 『三國遺事』 권1, <馬韓>. “甄萱上太祖書云: 昔馬韓先起, 赫世勃興, 於是百濟開國於金馬山. 崔致遠云: 馬韓, 麗也; 辰韓, 羅也. 【據本紀別羅先起甲子, 麗後起甲申, 而此云者, 以王準言之耳. 以此知東明之起已并馬韓而因之矣. 故稱麗爲馬韓. 今人或認金馬山, 以馬韓爲百濟者, 蓋誤濫也. 麗地自有馬邑山, 故名馬韓也.】”

다”라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리하여 ‘마한’은 남쪽의 백제와는 관련이 없고 북방의 고구려가 되는 셈이니, 바로 뒤에 〈이부〉와 〈낙랑국〉, 〈북대방〉 등을 배치해도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낙랑국〉은 “전한 때 처음으로 낙랑군을 두었다. 응소는 이를 ‘옛 조선국 이다’라고 하였다. 『구당서』의 주석에서는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 이다’라고 하였다”²⁸는 기사로 시작되며, 이어서 낙랑국 사람들이 신라에 가서 항복한 사실들이 서술되고 있다. 이 기사는 고스란히 〈북대방〉과 〈남대방〉으로 이어지는데, 기사 내용이 지리적으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대방〉에서 이어지는 〈말갈 발해〉에서 일연은 『통전』, 가탐(賈耽)의 『군국지(郡國志)』, 『삼국사(三國史)』, 『후위서(後魏書)』, 『지장도(指掌圖)』 등에서 지리적 사실들을 인용하며 발해가 속말말갈이며 고구려를 이었다는 것, 발해의 땅이 신라 땅에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말갈이 신라 북쪽 경계를 드나들었다는 것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서는 동명왕에게 멸망당한 북옥저, 신라에 말을 바친 동옥저 등의 일을 서술해서 북방과 남방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고조선〉에서 이어져 온 이런 흐름은 〈이서국〉과 〈오가야〉에서 일단락된다. 이서국은 청도(淸道) 지역으로 비정되므로 신라의 서쪽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오가야〉는 그보다 더 서쪽에 있었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발해와 말갈은 신라의 북쪽 경계와, 이서국과 오가야는 신라의 서쪽 경계와 각각 맞닿아 있었으니, 〈고조선〉부터 이어진 조목들은 〈오가야〉까지 이어지면서 ‘신라’ 앞에서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남쪽 끝에 있으니,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다시 북방으로 올라가서 〈북부여〉가 배치된

28 『三國遺事』 권1, 〈樂浪國〉. “前漢時, 始置樂浪郡. 應邵(劭)曰: ‘故朝鮮國也.’ 新唐書注云: ‘平壤城, 古漢之樂浪郡也.’”

것도 그 때문이다.

2. <북부여(北扶餘)>에서 <우사절유택(又四節遊宅)>까지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북부여>에서 <우사절유택>까지의 흐름이다. 이 또한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의 흐름과 흡사하다. 먼저 <북부여>를 보자.

『고기』에서 말하였다. “전한 선제 신작 3년 임술년(기원전 58) 4월 8일에 천제의 아들이 흘승골성【대요의 의주 경계에 있다.】에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와서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일컬었으며, 국호를 북부여라 하였다. 스스로 ‘해모수’라는 이름으로 일컬었고, 아들을 낳자 ‘부루’라 하고 ‘해’를 성씨로 삼았다. 왕은 나중에 상제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서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바로 고구려의 시작이다.”【아래를 보라.】²⁹

천제의 아들이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와 북부여를 세웠다는 내용은 <고조선>에 인용된 『고기』와 통한다. 매우 신이한 내용으로, 그 자체로는 믿기 어렵다. 그런데 ‘흘승골성’이라는 지명을 제시하고 거기에 주석을 덧붙였다. 위치는 중국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동북쪽의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지정되는데, 해부루 때 동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동명제가 그곳을 이어서 고구려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동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29 『三國遺事』 권1, <北扶餘>. “古記云: ‘前漢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 【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 移都于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而興, 立都于卒本州爲卒本扶餘, 卽高句麗之始. 【見下.】’”

기사가 뒤에 이어질 것임이 암시되고 있다.

〈북부여〉의 기사에 따르면, 해부루가 먼저 도읍을 옮기고 그 뒤에 고구려가 일어났다. 조목의 순서에서도 먼저 〈동부여〉가 나오고 그 뒤에 〈고구려〉가 이어진다. 이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도 동부여와 고구려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동부여〉는 그 서두에 도읍을 동해 가의 가섭원(迦葉原)이라는 곳으로 옮긴 사실이 나오고, 중간에는 금와왕의 탄생 이야기가 이어지며, 아래와 같이 끝을 맺는다.

지황 3년 임오년(22)에 고구려왕 무휼이 동부여를 쳐서 왕 대소를 죽이니, 나라가 없어졌다.³⁰

짤막한 내용이지만, 고구려가 북부여와 동부여를 아울러 차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사에 이어 〈고구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구려〉 또한 지리적 정보를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혹은 지금의 화주라 하기도 하고 또 성주라 하기도 하는데, 모두 잘못되었다.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었다.³¹

〈북부여〉의 말미에서 동명제가 졸본주에 도읍을 세웠다고 했는데, 〈고구려〉에서 졸본주가 요동 경계에 있었음을 밝히는 기사로 시작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고조선〉에서 단군왕검의 신이한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먼저 지리적 정보를 제시했던 것처럼 〈고구려〉에서도 지리

30 『三國遺事』 권1, 〈東扶餘〉. “至地皇三年壬午, 高麗王無恤伐之, 殺王帶素, 國除.”

31 『三國遺事』 권1, 〈高句麗〉. “高句麗, 卽卒本扶餘也. 或云今和州, 又成州等, 皆誤矣. 卒本州在遼東界.”

적 정보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동명왕의 탄생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는 일연이 나름의 의도를 갖고 각 조목의 내용을 구성하고 서술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에 이어지는 조목은 <변한 백제>다.

『신당서』와 『구당서』에서는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였고, 『후한서』에서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최치원은 “변한은 백제다”라고 하였다. 『본기』를 살펴보면, 온조가 일어난 때는 홍가 4년 갑진년(기원전 17)이니, 이는 곧 혁거세와 동명의 시대보다 40여 년이나 뒤다. 그런데 『당서』에서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온조의 계통이 동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³²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배다른 태자를 피해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피해 온 일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연이 그 이야기는 생략한 채 ‘변한’과 ‘백제’의 관계 및 지리적 정보에 관해서만 서술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 「기이」편 말미의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에 나온다.³³ 이 또한 일연이 「기이」편 앞부분에서 얼마나 지리적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32 『三國遺事』 권1, <卞韓百濟>. “新·舊唐書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 後漢書云: ‘卞韓在南, 馬韓在西, 辰韓在東.’ 致遠云: ‘卞韓, 百濟也.’ 按本紀, 溫祚之起在鴻嘉四年甲辰, 卽後於赫居世·東明之世四十餘年. 而唐書云‘卞韓苗裔在樂浪之地’云者, 謂溫祚之系出自東明, 故云耳.”

33 본고에서는 「기이」편 끝부분에 있는, 즉 <김부대왕> 뒤에 배치된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南扶餘前百濟北扶餘)>, <무왕(武王)>, <후백제 건원(後百濟甄萱)>, <가락국기(駕洛國記)> 네 조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지만, 그 조목들도 지리적 정보를 통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맥락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다.

〈변한 백제〉는 동명왕과 온조의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와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고, 뒤에 오는 〈진한〉과 〈우사절유택〉도 지리적 사실로써 이어져 있다. 〈진한〉의 서두를 보자.

『후한서』에 나온다. “진한의 늙은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달아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서 주고 서로 ‘도’라고 불렀는데, 진나라 말과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혹 진한(秦韓)이라고도 했다고 하였다.” 열두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으며, 각각 만 호로써 나라라 일컬었다. 또 최치원은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해서 온 곳이다. 그래서 도수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사는 고을을 일컬어 사도니 점도니 하였다”라고 하였다.³⁴

위의 글은 진한이 중국의 진나라 또는 연나라 사람들이 피해 온 곳이며, 마한의 동쪽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대륙이나 북방 지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와서 나라를 세우고 살았다는 말인데, 앞선 〈변한 백제〉와 공통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진한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신라에 이어진다. 위의 내용에 이어 “신라가 가장 흥성하던 때에 서울에는 17만 8천 9백 36호, 1천 3백 60방, 55리였다”³⁵로 시작되는 신라 쪽 관련 기사가 나오고 〈우사절유택〉을 거쳐 〈신라시조 혁거세왕〉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신라시조 혁거세왕〉이 “진한(辰韓)의 땅에는 옛날에 여섯 마을이 있었다”³⁶로 시작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34 『三國遺事』 권1, 〈辰韓〉.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來適韓國, 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十二小國, 各萬戶稱國. 又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 云沙涿漸涿等.’”

35 『三國遺事』 권1, 〈辰韓〉.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36 『三國遺事』 권1, 〈新羅始祖 赫居世王〉. “辰韓之地, 古有六村.”

앞서 살펴본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 지리적 정보도 '신라'의 경계에 이르렀고, 여기서 살펴본 <북부여>에서 <우사절유택>까지 서술된 정보 또한 '신라'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두 흐름이 모두 '신라'로 귀착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가야>도 지리적으로는 <우사절유택>과 마찬가지로 <신라시조 혁거세왕>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과연 이렇게 구성하고 배치한 의도는 무엇이며,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일연의 인식은 또 무엇일까?

IV.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인용되는 문헌들이다. 『삼국유사』는 민간에서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대거 수록하고 있지만, 문헌 기록에서 인용한 것들도 매우 많다. 본고에서 다루는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 17개 조목들에서 언급되는 문헌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중국 문헌: 『위서(魏書)』, 『구당서(舊唐書)』, 『통전(通典)』, 『전한서(前漢書)』, 『위지(魏志)』, 『주례(周禮)』, 『회남자(淮南子)』, 『논어정의(論語正義)』,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 『후위서(後魏書)』, 『지장도(指掌圖)』, 『주림전(珠琳傳)』, 『신당서(新唐書)』
- ② 국내 문헌: 『고기(古記)』, 『삼국사(三國史)』, 『해동안홍기(海東安弘記)』, 『국사(國史)』, 『동명기(東明記)』, 『제사납전기(諸寺納田記)』, 『본조사략(本朝史略)』

사서(史書)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들이 나온다. 위의 문헌들 가운데는 여러 차례 인용되는 것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7개 조목에서 나온 이들 문헌들이 「기이」편의 중심에 해당하는 <신라시조 혁거세왕>부터 <김부대왕>까지 38개 조목들에서 인용된 문헌들보다 더 많고 다양하며, 인용문의 비중도 훨씬 높다는 점이다.³⁷ 이와 더불어 특징적인 면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위의 문헌들 가운데 지리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국지』는 당나라 때 인물인 가담(賈耽)이 지은 지리서이며, 『지장도』는 <말갈 발해>에서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지은 책으로 나온다. 또 『주례』와 『통전』도 지리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 책이다. 『주례』는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관사도(地官司徒)」의 내용이 대부분 지리와 관련되어 있다. 또 『통전』은 두우(杜佑)가 지은 책으로 모두 200권인데, 「주군(州郡)」 14권과 「변방(邊防)」 16권, 합쳐 30권이 지리적 사실을 기술한 편들이다. 17개 조목들에서 『군국지』는 1회, 지장도는 4회, 『통전』은 3회, 『주례』는 1회 인용되는데, 이 밖의 조목들에서는 『통전』이 1회 언급될 뿐이다.³⁸ 이는 그만큼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의 내용이 지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지리서라고 볼 수 없는 나머지 문헌들에서 인용한 내용들도 거의 지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쪽 사서든 국내의 사서든 대개 지리와 관련해서 인용되었다. 『구당서』의 <배구전(裴矩傳)>은 열전임에도 일연은 고구려 및 조선과 관련된 지리적 사항만을 가져와 <고조선>에 실었다. 다양한 사상과 학설을 집성한 『회남자』,

37 김두진(2004). 앞의 논문에서 『삼국유사』 전체의 인용 문헌과 성격에 대해 고찰하면서 『삼국사기』와 견주어서 『삼국유사』는 주로 국내 사서나 문헌을 인용하였다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 조목들에서 중국 문헌이 국내 문헌보다 많고 비중이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38 그나마 지리적 정보가 꽤 많이 나오는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에서 인용되었다.

『논어』 주석서인 『논어정의』 등 그 밖의 문헌들에서도 일연은 주로 지리적 사항을 인용해 중요하게 다루었다.

삼국 이전의 역사와 관련해서 지리적 사항들을 중시한 것으로 볼 때, 일연이 중국 측 문헌들을 대거 인용한 이유가 단순히 국내의 기록이나 자료가 부족하고 부실해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자료의 부족과 부실이 주된 이유였다면, 확보한 문헌들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용을 해서 고대사를 더욱 풍부하게 또 충실하게 서술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II에서 분석했던 바와 달리 17개 조목들에서도 설명과 논증보다 서사의 비중이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런데 일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지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는 해도 일반적인 역사 서술로 보기에 너무도 소략한 조목들도 많다. 도대체 역사를 서술하려던 것이 맞기는 할까 싶을 정도다. 과연 일연이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앞서 III에서 추출한 두 갈래의 흐름이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 그리고 <북부여>에서 <우사절유택>까지가 그것이다. 두 갈래의 흐름은 앞과 뒤의 조목들이 서로 지리적 정보를 통해 긴밀하게 이어지면서 형성된 것이며, 둘 다 <신라시조 혁거세왕>에서 수렴된다고 했다. 즉, 고조선 및 북부여에서 시작된 각각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신라'에서 합쳐진다는 말이다.

『삼국유사』 전체가 신라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니 신라에서 수렴되는 이런 흐름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이」편을 글쓰기에 주목해서 본다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신라사에 해당하는 <신라시조 혁거세왕>에서 <김부대왕>까지는 왜 설명과 논증이 거의 없이 서사료만 글쓰기가 이루어졌을까? 왜 지리적 정보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신라사는 왕위의 계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역사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는 왕위의 계승 또는 정치체의 계승으로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계승 관계를 파악하며 혼동되어 있다고 하거나³⁹ 여러 계승 관계가 있다고 본 것⁴⁰도 그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서나 역사 서술을 염두에 두고서 또는 연구자가 고대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위에서 「기이」편을 들여다보았음을 의미한다. 「기이」편 내에 두 가지 대비되는 글쓰기가 있다는 점, 그 글쓰기의 차이가 곧 내용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점, 따라서 서술의 맥락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는 구성과 배치에서 왕위의 계승이 주요한 축이 아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적 정보가 각 조목들을 이어주는 주요한 축이었다. 그 축을 따르면, 17개 조목들은 북방에서 남방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고대사가 이동해 온 역사임을 말해준다. 물론 이 이동이 신라에서 수렴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신라사 중심이라거나 「기이」편이 삼국통일론⁴¹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39 최상천(1985), 앞의 논문에서 고조선이 고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이부로 연결되는 지역적 계승과 고조선→기자조선→마한→칠십이국으로 연결되는 혈연적 계승이 혼동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개국과 관련된 천강설화를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에 대한 현재의 지식에 입각해서 접근한 탓이기도 하다.

40 김병곤(2004), 앞의 논문에서는 본고에서 고찰한 조목들을 다루면서 위만조선→한사군→이부→삼한→삼국, 북부여→졸본부여는 지리적 계승으로 이어져 있고, 고조선→북부여, 북부여→동부여, 기자조선→마한 등은 동일 왕계 계승, 위만조선→이부→삼한→삼국, 낙랑국·북대방→신라 등은 인적 계승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여러 계승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계승'이라는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41 박미선(2008), 앞의 논문, 159-167쪽과 김수태(2017), 앞의 논문, 201-212쪽에서는 「기이」편을 삼한통일론 또는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각 조목들의 배치와 연계성 및 글쓰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따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않다.

요컨대,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 17개 조목들은 ‘지리적 계통’을 축으로 구성되고 배치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 사건에 단순히 지리적 정보를 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 자체를 지리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즉, 고조선에서 신라까지 이어지는 고대사의 전개를 지리적 이동 또는 변화로 보고 서술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일연의 고대사 인식이며 독특한 역사지리 인식이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제목에 따라 ‘삼국의 일들’만 다루어도 충분했을 터인데도 기록이 소략하고 불충분한 ‘삼국 이전’의 역사를 굳이 서술했다. 더구나 삼국 이전보다는 고구려와 백제에 관한 기록들이 더욱 풍부했을 것임에도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넘어갔으면서 말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제쳐둔 데 대해서는 『삼국사기』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고대사에 관한 조목들을 굳이 둔 이유까지 해명해 주지는 못한다.

일연이 ‘삼국 이전’을 서술하고 특히 고조선에서 시작한 것은 ‘삼국’의 개국을 다르게 보았음을 의미한다. 즉, 일연은 ‘삼국’의 개국을 특정한 창업 군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고조선에서 시작된 지리적 이동의 연장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단대사의 관점을 버리고 통사의 관점으로 삼국을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통사라 해도 왕조의 흥망이 아닌 지리적 이동 또는 변동을 통해 보았다는 점에서 특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일연이 ‘삼국 이전’의 역사를 서술한 것, 각 조목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게 여길 만한 배치와 구성을 한 것 등은 그가 고대사를 기존의 지식인들과는 다르게 또는 새롭게 보았음을 말해준다. 그의 역사지리 인식은 현재의 국가와 영토, 구체적으로는 그가 살았던

고려의 땅이 고정불변이 아니었으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변동을 거듭해 왔다는 데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그에게서 역사는 지리적 이동이나 변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기이」편의 전체적인 구성, 특히 〈신라시조 혁거세왕〉 앞부분에 배치된 〈고조선〉에서 〈우사절유택〉까지 17개 조목들이 매우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해 글쓰기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 조목들은 설명과 논증의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하가 서사로 이루어진 것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었다.

17개 조목들에서 주로 쓰인 설명과 논증은 지리적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글쓰기였다. 국내 및 중국 문헌들을 다수 인용했음에도 주로 지리적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 서사적 내용에서도 지리적 정보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기존의 역사 서술과 다른 특성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지리적 정보들은 무관해 보이는 조목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 구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갈래의 지리적 이동 또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 이어지는 흐름과, 〈북부여〉에서 〈우사절유택〉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은 모두 〈신라시조 혁거세왕〉에서 합쳐지는 구성이었다.

「기이」편 앞부분의 독특한 구성과 글쓰기는 고대사에 대한 일연의 이해, 나아가 역사에 대한 일연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와 지리를 하나로 아우르는 인식이었다. 이런 역사지리 인식은 대개의 사서에서 지리

와 관련된 항목을 따로 두고 지리적 사실을 부수적으로 다룬 것과 달리, 지리와 역사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말해준다. 그의 인식에서 고조선부터 고려 이전까지는 지리적 이동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런 인식은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탈피한 데서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을 통해 드러난 고대사는 이리했다. 첫째, 고대사는 왕위 계승의 관점에서가 아닌 지리적 계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단절이나 혼란이 없는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다. 둘째, 그 흐름은 고대사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지리적 이동을 해온 역사다. 그런데 일연의 이 고대사는 실제 역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영성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이 갖는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국가나 왕조를 중심으로만 역사를 보아서는 그 국가나 왕조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전의 국가나 왕조, 그 뒤의 국가나 왕조 등과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것이 없는 시각이지만, 단대사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매우 독특한 시각일 수 있다. 셋째, 사라져버린 시간의 흔적이라도 지리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게 해주는 것이어서 새삼 놀랍기도 하다.

본고는 『삼국유사』를 역사지리라는 관점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작업을 했다. 그러다 보니, 빠뜨린 부분이나 거칠게 넘어간 부분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이」편 말미의 조목들도 앞부분만큼이나 특이한데, 그 연관성을 다루지 못했다. 일연의 역사지리 인식이 당대의 지식인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三國遺事』. 민족문화추진회.

강인구 외, 『譯註 三國遺事』 I-II. 이회문화사, 2002.

『東國李相國集』, 『高麗名賢集』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2. 논문

김두진, 「『삼국유사』의 인용문과 그 성격」. 『사학연구』 76호, 2004, 85-122쪽.

김병곤, 「『삼국유사』 찬자의 상고기 정치체에 대한 계승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23, 2011, 5-38쪽.

김성수,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의 分析」. 『서지학연구』 29집, 2004, 207-240쪽.

김수태,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41호, 2017, 181-222쪽.

김주성,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 34집, 2010, 503-527쪽.

남동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집, 2019, 199-240쪽.

박미선, 「일연(一然)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0호, 2008, 143-170쪽.

엄태웅, 「『삼국유사』 「기이」 부여·고구려 관련 기사의 서술 의도: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서사적 접근」. 『열상고전연구』 47집, 2015, 623-666쪽.

이강엽, 「『三國遺事』 「紀異」篇의 敘述原理」. 『열상고전연구』 26집, 2007, 481-519쪽.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신라문화』 1집, 1984, 18쪽.

이대형, 「삼국유사 소재 ‘기이’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1집, 1998, 151-179쪽.

정구복, 「『삼국유사』에 반영된 역사관과 기이편의 성격」.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14.

정친구, 「三國遺事 글쓰기 방식의 특성 연구: 殊異傳·三國史記·海東高僧傳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차광호,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인식』. 『사학지』 55집, 2009, 70-89쪽.
- 최상천, 「三國遺事에 나타난 國家繼承意識의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1집, 1985, 241-258쪽.
- 하정현, 「一然의 神話認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국문초록

『삼국유사』는 제목에서 ‘삼국의 유사’임을 밝혔음에도 「기이」편의 앞부분에 ‘삼국 이전’의 역사와 관련된 조목들을 열 편 이상 수록하고 있다. 이 조목들은 단순히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후의 조목들과 글쓰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런 독특한 구성과 글쓰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연은 「기이」편의 앞부분에서 삼국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주로 설명과 논증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하가 거의 서사라는 점과 대비된다.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과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논증이 쓰인 것은 지리적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 지리적 정보는 두 개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이며 다른 하나는 <북부여>에서 <우사절유택>까지다. 이 두 갈래는 고대사가 북방의 대륙에서 남방의 해양으로 지리적 이동을 해온 역사임을 공통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이는 일연이 ‘삼국 이전’의 역사를 단순히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지 않고 지리적 변화와 아울러 파악했음을 의미하며, 왕권이나 정치체의 계승이 아닌 다른 계통을 세우려 했음을 의미한다. 고대사를 북방에서 남방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개되거나 이동한 역사로 본 것이다.

일연이 고대사의 흐름을 지리적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 즉 역사지리적으로 파악한 것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뛰어난 인식이다. 이를 부실하고 불충분한 자료로 말미암아 고대사의 전개를 온전하게 서술할 수 없었던 한계에서 나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보다는 한국의 고대사가 ‘대륙에서 해양으로’ 지리적 이동을 한 역사임을 통찰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고일 2020. 3. 23.

심사일 2020. 4. 21.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삼국유사(Samgukyusa), 기이(Kiyi), 글쓰기(writing), 설명(exposition), 논증(argument), 역사(history), 지리(geography), 역사지리(historical geography)

Abstracts

A Study on Perception of Historical Geography of Ilyeon(一然) Jung, Chun-koo

The title of *Samgukyusa*(三國遺事) means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三國) which is Goguryo, Baekje, and Silla. But Ilyeon(一然) who is the author of *Samgukyusa* had written the history of before the three kingdoms in Kiyi(紀異), which is a foremost chapter(篇目) in it and contains 57 items(條目). In Kiyi there are 17 items concerned with the history of before the three kingdoms.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m and find out the purport of them.

There is a wide difference of writing between 17 items and the other items in Kiyi. The former are written with exposition and argument, but the latter written with narrative. Ilyeon had made a difference deliberately in writing of Kiyi. He adopted the writing of exposition and argument to suggest geographical information, which shows two streams of the history of before the three kingdoms. The one is a stream coming down to Ogaya(五伽耶) from Gojoseon(古朝鮮), the other is a stream to Jinhan(辰韓) from Bukbuyeo(北扶餘). Two streams flows side by side into Silla which is a southernmost country of the three kingdoms. It means that Ilyeon took a look at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geographical movement. Ilyeon had a particular and marvelous insight fusing geographical changes into a chronicle. His insight was derived from abandoning a perspective of succession and having a perspective of geographical system. To sum up, 17 items in Kiyi have connotation that the ancient Korean was moving ceaselessly to the south from the north or to the ocean from the continental.